

「성탄제」 _ 오장환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슬히 햇불은 꺼지지 않는다.

못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나아린 사슴은 보았다
 오늘도 물이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어두운 골짜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 울린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 오장환, 「성탄제」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산속에서 벌어지는 살육의 현장을 통해 일제의 위력에 희생당하는 당대 우리 민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 ‘어두운 숲’과 ‘골짜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물이꾼’, ‘포수’, ‘사냥개’는 생명을 유린하는 폭력적 존재로, ‘사슴’은 연약한 생명체로 대비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비는 생명을 유린하는 세계의 폭력성을 부각한다. 한편 ‘쇠북 소리’는 사냥꾼이 사냥할 때 내는 종소리 또는 성탄을 알리는 종소리로 해석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쇠북 소리’는 순결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연: 피를 흘리며 쫓기는 사슴
- 2연: 사슴을 쫓는 인간의 집요한 추적
- 3연: 사냥꾼에게 희생되는 동물들을 목격하는 어린 사슴
- 4연: 어미 사슴을 살리고 싶은 어린 사슴
- 5연: 아슬한 곳에서 들리는 쇠북 소리
- 6연: 죽어 가는 어미 사슴이 흘리는 눈물과 피

✓ 주제 : 폭력적 세상에서 순결한 존재가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 ① ‘눈(흰색)’과 ‘핏방울(빨간색)’, ‘어두운 골짜’와 ‘하얀 꽃’ 등의 색채 이미지가 대비되는 소재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밤 이슬히 햇불은 꺼지지 않는다’에서 밤새 꺼지지 않는 ‘햇불’은 사슴을 노리는 포수의 추적이 밤새도록 지속될 정도로 집요함을 나타낸다.
- ③ ‘오늘도 물이꾼이 메고 오는 / 표범과 늑대’에서 ‘표범과 늑대’는 포수가 사냥한 동물로, 포수가 힘센 짐승까지도 사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임을 드러낸다.
- ④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에서 ‘샘’과 ‘약초’는 어린 사슴이 죽어 가는 어미 사슴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떠올리는 소재들로, 어미의 소생을 바라는 어린 사슴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⑤ 이 작품은 외부의 폭력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물을 통해 인간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가 파괴되는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조선 민중을 유린하는 일제의 폭력성을 드러내며, 나아가 생존마저 위협당하는 조선 민중이 생명의 길을 찾기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⑥ ‘어두운 숲’과 ‘어두운 골짜’는 자연물이 희생당하는 살육의 공간을 나타낸 것이고, ‘포수’는 조선 민중을 억압하고 유린하는 일제를 상징하는 것이로군.
- ⑦ ‘죽은 이로 하여금 / 죽는 이를 묻게 하라’는 것은,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의 생명이 종식되면서 죽음의 세계로 넘어가는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어미 사슴은 이미 죽음의 세계에 있으므로 어린 사슴만이라도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 즉, 생명의 길을 찾기 바라는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로군.

[T H E - 깊 은 독 해]

* 제목 '성탄제'는 예수의 탄생일이다. 사랑과 화해의 상징인 성탄제를 통해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랑의 의미를 지닌 성탄제에 어린 생명체의 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역설적 의미를 지닌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 시간적(밤), 공간적(숲)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이때 '어두운 숲'은 이 글의 시적 공간으로, 부정적 현실 상황을 상징하며 뒤의 시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살육과 폭력이 난무하는 공간이다.

물이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 어두운 숲에서 물이꾼이 짐승을 사냥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이다. 이때 '물이꾼'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적 존재이고, '날카로운 소리'는 생명을 살상하는 소리일 것이다.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물이꾼'은 일제를 상징한다.

쫓기는 사슴이

→ 사슴을 사냥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쫓기'라는 표현을 통해 긴박감이 나타난다. 이때 '쫓기는 사슴'은 연약한 존재를 의미한다.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 폭력으로 인해 희생당하는 생명체의 모습을 색채 대비, 냉온 감각의 대비(차가운 흰 눈 ↔ 따뜻한 붉은 핏방울)를 통해 부각하고 있다. (폭력성 부각, 비극적 상황 강조) 이때 '따뜻한 핏방울'은 생명성을 뜻한다. 사슴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따뜻한 핏방울'이라는 표현은 역설적 의미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

▶1연: 핏방울을 흘리며 쫓기는 사슴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슬이 햇불은 꺼지지 않는다.

→ 밤이 깊어질 때까지 물이꾼의 물이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때 '햇불'은 폭력성을 상징한다. '햇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에서 물이꾼의 집요함과 끝없는 욕망을 느낄 수 있다.

▶2연: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물이

못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 '며칠씩 산속에 잠'한다는 것에서 물이꾼의 집요함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포수와 사냥개'는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물이꾼을 의미한다.

나어린 사슴은 보았다

→ '나어린 사슴'은 연약한 생명체를 상징한다.

오늘도 물이꾼이 메고 오는 / 표범과 늑대.

→ '표범과 늑대'는 물이꾼에게 희생된 생명체이다. 강한 짐승들까지 희생된다는 점에서 물이꾼의 폭력성을 부각한다. '보았다'의 목적어가 '표범과 늑대'이므로 윗줄과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어린 사슴과 물이꾼의 대비를 통해 어린 사슴의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3연: 물이에 희생된 동물들을 본 어린 사슴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 어린 사슴의 애처로움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 그것은(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은)

어두운 골짜기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 '어두운 골짜기'는 어두운 숲을 말하는 것으로, 암담한 현실을 뜻한다.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

→ 어린 사슴이 어미의 상처를 낫게 할 샘물과 약초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미를 살리고 싶은 어린 사슴의 소망이 나타난다. '샘'과 '약초'는 어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수단이자 생명 지속을 위한 희망적 대상이다.

▶4연: 어미를 치유할 생각을 하는 어린 사슴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 울린다

→ 아슬아슬하게 높은 교회의 첨탑에서 종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이다. '쇠북 소리'는 교회 탑의 종소리를 뜻한다.

죽은 이로 하여금 / 죽는 이를 묻게 하라.

→ '쇠북 소리(종소리)'의 의미를 나타낸다. 종소리는 죽어가는 존재는 어쩔 수 없으며, 산 자는 산 자의 길을 가야 함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린 사슴은 어미 사슴의 죽음에 얽매이지 말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죽은 이'는 이미 죽은 존재로, 이제까지 죽은 이를, '죽는 이'는 죽어가는 존재로, 희생되는 이를 뜻한다.

<참고> 일부 학자는 5연의 '쇠북 소리'를 살상이 계속되는 소리로 보고, 물이로 인한 죽음이 계속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5연: 아슬한 곳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길이 돌아가는 사슴

→ 죽음의 상황에 놓인, 즉 죽음의 세계로 가는 사슴을 뜻한다. 아마 어미 사슴일 것이다.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 '맑은 이슬'은 어미 사슴이 흘리는 눈물을 비유한 표현이다.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 폭력으로 인해 희생당하는 생명체의 모습이 드러난다. 1연의 4행을 반복 변주하였으며, 팔줄입표를 통해 여운을 남기고 있다. '따뜻한 핏방울'은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이가 지녔던 온기(생명성)를 뜻한다.

▶6연: 희생당하는 연약한 사슴의 눈물

[수능적 독해 Point]

- 화자 :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 [관찰자]
- 상황 : 물이꾼들이 밤늦게까지 사슴을 사냥하는 것을 지켜봄
- 정서·태도 : 생명체 희생에 대한 안타까움, 폭력성에 대한 비판

[연 관 - 기 출 문 제]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물이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슬이 햇불은 꺼지지 않는다.

뭇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나어린 사슴은 보았다
오늘도 물이꾼이 메고 오는

㉡ 표범과 늑대.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어두운 골짜기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 울린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 오장환, 「성탄제」

(나)

어떤 이는 눈망을 있는 것들 차마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데 ㉣ 내 접시 위의 풀들 깊고 말간 천개의 눈망울로 뻥히 나를 쳐다보기 일쑤. 이 고요한 사냥감들에도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뒀안 있으니 내 앞은 접시나 그들 앞은 접시나 매일반.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생식을 할 때나 화식을 할 때나 육식이 나 채식이나 매일반.

문제는 내가 떨림을 잃어 간다는 것인데, 일테면 만년 전의 내 할아버지가 알락꼬리암사슴의 목을 돌도끼로 내려치기 전,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올리던 기도가 지금 내게 없고 (시장에도 없고) 내 할머니들이 돌칼로 어린 죽순 밑등을 끊어 내는 순간,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의 떨림이 없고 (상품과 화폐만 있고) ㉤ 사뭇 괴로운 포츠만 남았다는 것.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나 아닌 것의 숨을 끊을 때 머리 가죽부터 한 터럭 뿌리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숫는 법을 잃었으니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내 올라앉은 욕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 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

- 김선우, 「깨끗한 식사」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냉온 감각의 대비를 통해 삶과 죽음의 간극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근경에서 원경으로 조망 범위를 넓히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색채의 대비가 되는 시어를 병치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완결되지 않은 문장을 사용하여 시상 종결에서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사한 구절의 점층적 확장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애상감을 강조하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생명 살상이 일어나는 현장의 비정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 위험에 처한 대상에게 위협과 폭력을 가하고 있는 존재들을 나타낸다.
- ③ ㉢: 힘겨운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생명을 소생시킬 수단을 발견했음을 상징한다.
- ④ ㉣: 생명을 지닌 식물들도 자신을 해친 대상에게 희생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 주체와 타자의 구분을 넘어서서 연대를 이루어 공존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3. <보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가)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성탄제」의 창작 시기 및 주요 시어와 관련된 자료]

- 창작 시기: 1930년대. 일제 강점으로 군국주의가 지배적이던 시기임.
- 성탄제: 종교적으로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 골짜기(골짜, 골):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어 들어간 곳으로, 구렁지고 경사진 곳.
- 햇불: 어둠을 밝히기 위해 화에 붙인 불.
- 아슬하다: '일 따위가 잘 안될까 봐 두려워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마음이 약간 위태롭다.' 또는 '아찔아찔할 정도로 높거나 낮다.'라는 의미의 동음이의어임.
- 쇠북 소리: 종소리. 성탄절의 종소리는 용서와 화해, 구원을 상징하며, 사냥할 때 내는 종소리로 볼 수도 있음.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생명에 대한 고찰은 문학의 주된 연구 과제이다. 특히 인간과 동물, 식물 등 세상의 자연 존재들이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생각은 생태적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문학 작품은 생태적 상상력을 통해 개체들의 존재 의미에 대해 물음을 던지거나 각 개체들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순환 과정을 겪는다는 인식을 유도하기도 하고, 세계의 폭력성과 생명체의 연약성을 대비하며 약자에 대한 연민을 표출하기도 한다. 나아가 생태적 상상력은 문명 발달로 생명이 훼손되는 실상, 인간의 이기를 우위에 둔 자본주의의 교환 논리 등에 대해 반성적 사유의 계기를 제공하며 인간을 비롯한 다른 생명체의 상처에 대한 치유와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① (가): '며칠씩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와 대비되는 '나어린 사슴'의 모습은, 폭력적인 존재에 의해 위협받는 연약한 생명체의 모습을 환기하여 약자에 대한 연민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 어린 사슴이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을 떠올린 것은, 긴장감이 감도는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상처 입은 생명을 소생시켜 줄 샘과 같은 치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나):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듯이 생존 욕구를 지니고 '욕망하던 뒀안'이 있었던 존재가 '이 고요한 사냥감들'로 접시 위에 올라오게 된 것은, 자연 존재들이 고정불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 순환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 ④ (나): '내가 떨림을 잃어 간다는'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상품과 화폐만 있'다고 인식한 것은, 생명이 훼손되는 실상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교환 논리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 ⑤ (나): '내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이유는, 주체인 자신도 생명 순환 과정에서 언제 희생될지 모른다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All-바르게 확인하는 정답 및 해설]

1.

[정답 SCAN] ④

④ (가)에서는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이라는 완결되지 않은 문장을 사용하여 여운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는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 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라는 완결되지 않은 문장을 사용하여 여운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 SCAN]

- ① (가)의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은 추운 겨울을 나타내는 ‘눈’ 위에 생명을 나타내는 ‘따뜻한 핏방울’이라는 감각을 대비하여 생명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화식’에서 따뜻함과 관련된 감각이 드러나 있고 ‘생식’이 이에 대비되는 차가운 감각과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화식’이 삶, ‘생식’이 죽음이라는 대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 ② (가)는 1연에서 ‘어두운 숲’에서 ‘따뜻한 핏방울’로, 2~4연에서는 언덕의 ‘햇불’에서 ‘사슴’으로 조망 범위가 좁혀지고 있으며, 마지막 연에서는 ‘돌아가는 사슴’의 ‘두 뺨’과 ‘눈 위의 ‘핏방울’이라는 근경으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나)의 시상 전개에서는 거리에 따른 조망 범위가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가)는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에서 흰색과 붉은색을 병치하여 ‘눈’의 순결함, 차가움과 ‘핏방울’의 따뜻함, 폭력의 잔혹함을 부각하고 있다. (나)에서는 색채의 대비를 이루는 시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 ⑤ (가)는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을 유사한 구절의 점층적 확장이라고 볼 수 있고, ‘쇠북 소리’가 들린다고 한 부분을 물이꾼에게 쫓기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볼 경우, 대상인 사슴에 대한 화자의 애상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이)나 매일반’, ‘없고’를 반복하면서 점층적으로 확장하여 생명에 대한 윤리를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애상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정답 SCAN] ①

① ‘어두운 숲’과 ‘물이꾼의 날카로운 소리’를 통해 다른 생명을 유린하는 폭력적인 현장의 음산하고 비정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SCAN]

- ② ‘표범과 늑대’는 ‘사슴’보다 강인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사냥이라는 폭력에 희생된 짐승으로, 사슴이 처한 상황에 위협과 폭력을 가하고 있는 존재는 아니다.
- ③ 사슴의 ‘두 뺨’에 내린 ‘맑은 이슬’은 어린 사슴을 두고 죽어 가는 어미의 안타까움, 슬픔 등과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고, 어미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어린 사슴의 슬픔과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들이 겪는 폭력적 상황에서 죽어 가는 생명을 소생시킬 수단을 ‘이슬’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다.
- ④ ‘내 접시 위의 풀들이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한 것은, 자신이 먹는 음식도 생명을 지닌 존재였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식물들을 해친 대상이 화자인 것도 아니고, 식물들이 화자에게 대가를 요구하려고 화자를 바라본다고 할 수도 없다.
- ⑤ ‘괴로운 포즈’만 남았다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 속에 주체인 화자가 대상인 타자의 희생에 대한 마음의 떨림을 잃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이지, 연대를 이룬 상태로 공존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3.

[정답 SCAN] ④

④ ‘햇불’은 ‘물이꾼’이 사슴을 집요하게 쫓는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 상황과 관련되었을 때 군국주의의 폭력성으로 긴장감이 지속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SCAN]

- ① 자료를 통해 볼 때, 작품의 제목인 ‘성탄제’는 예수 탄생의 의미와 달리 살생이 일어나는 역설적 상황을 통해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붙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쇠북 소리’를 사냥 행위와 관련되어 들리는 소리라고 볼 경우, ‘나 어린 사슴’과 ‘어미’의 주위에 여전히 ‘아슬한’, 즉 생명을 위협하는 위태롭고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골짜기’와 ‘비탈’은 모두 경사진 곳으로, 이동하기에 험거운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쫓기는 사슴의 모습을 통해, 우리 민족이 시련을 겪고 있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 어린 사슴’이 소생을 바라며 ‘어미의 상처’를 핏지만, 결국 눈 위에 ‘핏방울’만 남는 장면으로 미루어, 계속 쫓겨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 사슴이 죽어 가는 어미 사슴을 두고 떠나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암흑기의 우리 민족이 처한 비극적 상황과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다.

4.

[정답 SCAN] ㉔

㉔ 화자가 ‘내 올라앉은 옥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타자의 생명에 대한 연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한 다른 생명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희생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SCAN]

- ㉑ ‘포수와 사냥개’는 여러 날을 산에서 지내며 생명을 유린하는 폭력적인 존재이며, ‘나어린 사슴’은 이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존재로 대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약자에 대한 연민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 ㉒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을 떠올리며 어미의 상처를 앗는 것은, 사냥의 폭력으로 생명의 위협에 처한 어미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심정이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㉓ 접시 위에 놓인 ‘사냥감들’도 다른 생명과 마찬가지로 생명 유지를 위한 ‘욕망하던 뒤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명체가 생명 유지를 위해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 ㉔ 화자는 생명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 떨림과 같은 감정을 잃어 가는 상황을 ‘문제’라고 인식하며, 생명이 훼손되는 실상에도 불구하고 ‘상품과 화폐’, 즉 자본주의의 교환 논리가 더 중시되는 현실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